



직지사 새벽예불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처음 해보는 독송이지만 한자 한자 따라서 읽었다. 또 정진기도 시간에도 서론 자세로나마 부처님 전에 30분을 올렸다.



연등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주한 외교관들.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가장 친환경적인 식사법"이라고 극찬하며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새벽예불 · 참선 · 발우공양 감동적 체험”



폴란드 호미츠키 대사가 정성을 들여 증편양 떡볶이를 쓰고 있다.

지도법사 정진스님은 “그 말도 울지만 답은 아니다”며 “자나 깨나 의심을 1111일 동안 하다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는 모두 잠꼬대이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을 하며 더욱 알송달송한 말로 참선을 끝내게 했다. 참선이 끝난후 통역을 맡은 미산스님은 “이같은 어려운 질문은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니 참선을 통해 논리가 아닌 직관의 세계를 경험해 보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대사들과 그 가족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서구식 사상에 젖어 살아온 외국대사들은 도저히 공안을 이해 못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역시 한국불교를 알려면 화두참선을 해야겠다고 느꼈는지 외국대사들과 가족들은 참선프로그램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지자 정진스님에게 물려가 화두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노르웨이 아릴드 브라스타드, 핀란드 라우리 코피넨, 아일랜드 폴 머레이 대사가 “참선하는 동안 사고를 멈추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질문하자, 정진스님은 “참선은 사고 멈추기 연습이며, 정신의 깊은 응집이 필요하다”며 “화두를 끊임없이 의심하면 자신의 성품이 모아져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과 한국방문의 해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여 11~12일 김천 직지사에서 개최한 주한외교사절 템플 스테이 체험행사에 참가한 캐나다 호주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멕시코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20개국 40여명의 주한 외교대사와 가족들은 다도, 예불, 연등만들기, 율령, 탁본, 발우공양, 야외명상 등을 통해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주한대사들과 그 가족은 탁본체험에도 관심을 가졌다. 외국인 대사들은 수탁(종이를 물에 젖게 하는)탁본을 하며, 이마에 팻방을 이 맺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열중했다. 가장 어려운 용 문양을 정성스럽게 탁본하여 다른 대사들로부터 박수까지 받은 폴란드 호

“앞에 지름 2m크기의 동그란 원이 있는데 원안에 들어가도, 밖에 있어도 한대 맞는다. 맞지 않을 수 있는 답을 제시해 보세요”
12일 새벽 4시 30분, 직지사에서 새벽예불을 마치고 간단한 선채조로 몸을 풀고 가부좌를 틀 20개국 주한외국대사와 그 가족 40명 앞에 이같은 화두가 주어졌다. 알송달송하기 그지없



20개국 외교사절 직지사서 템플 스테이

는 화두를 받고 그 해답을 찾기위해 주황색 수련복을 차려입은 외국인들은 모자 모양으로 둘러앉아 흐트러짐 없이 참선에 들었다.
30분의 참선이 끝난 후 나오는 대답, “들어갈 필요가 없으면 나올 필요도 없다”(폴란드 타데우시 호미츠키 대사)
“선위에 서 있으면 되지 않느냐”(헝가리 대사 부인 클라라 라슬로)



주한 외국대사들과 그 가족들은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중 화두참선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는 계속 참선을 배우고 싶다는 열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자유시간때 화두에 대한 질문 쏟아져 “템플 스테이 매력적 ... 홍보 잘하면 성공”

미츠키 대사는 “1500여년전 방식 그대로 탁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랐다.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과 보존성에 찬사를 보낸다”며 먹물이 물은 얼글로 줄거은 표정을 지었다. 신라 백제시대의 문양을 탁본한 외국인들은 직접 탁본한 한지를 조심스럽게 말아서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고이 간직했다.

사람에서의 마지막 공양은 사찰의 전통식사법인 발우공양으로 준비됐다. 승의스님이 “한톨의 찌꺼기도 남김없이 물로 씻어 마셔야 한다”고 하자 겁을 집어먹다 환경전환적인 식사법이라는 설명에 외국대사와 가족들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아일랜드 폴 머레이 대사는 “한국불교문화를 눈으로 보는데 그



승광사 교무 정일스님의 안내로 승보전 심우도 벽화를 감상하고 있는 파리문인협 회원들.

프랑스 파리문인협 회원 7명 승광사서 한국수행가풍 체험

프랑스문인협회 회원들이 사찰에서 한국불교를 직접 체험하는 ‘템플 스테이’ 행사를 가졌다.

프랑스 파리문인협회 회장 클로드 에스테방(Claude Esteban)씨를 비롯한 7명의 프랑스 문인협회 회원들은 4일 승선 승광사의 선암사를 둘러보고 한국의 수행가풍을 체험했다.

프랑스 문인협회 회원들은 승광사 주지 현봉스님과 차를 마시며 한국불교에 대해 답소를 나눴고, 답소 후에는 저녁예불에 직접 참석했다.

승광사 교무 정일스님의 안내로 승보전 벽면에 새겨진 심우도를 감상하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와 친나를 찾는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 본 에스테방 회장은 “한국불교의 깊은 사상과 전통미를 통해 한국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승광사 = 주용작 광주지사장

치지 않고, 직접 산사에 들어와 수련복을 입고 친환경적인 발우공양 등을 경험해보니 인상 깊다”고 말했다.

한국에 온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노르웨이 아릴드 브라스타드 대사는 “템플 스테이가 외국인들에게는 한국문화를 빨리 이해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다.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글 = 김원우 / 사진 = 고명배 기자

1 2002 월드컵을 맞이하여 6

만국역리학

보덕 지음

9 중운세풀이서

신국판 112쪽
값 6,3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우) 339-834
중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T. 0411867-4000
F. 0411867-4001

3 8

▲ 돌림 정확사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증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부모에게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건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절멸, 신진대사 촉진, 미취학 약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치를 조금만 먹어도 수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지능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성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환하하음는 스님
오늘도 衆生 救濟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귀족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禱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곱할 기회를 못 가져셨던 스님께 眞摯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코자 하오니 부담 없이 眞摯 전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당(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당(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심마당 長腦 山蔘